

한국스승기념관 건립 방향 및 추진방안 연구

연구수행: 문화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김경태
선임연구위원 이인배

스승기념관 건립 방향 및 추진방안 연구

- 목 차 -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1
II. 현황분석	2
1. 논산시 문화관광여건	2
2. 기호유교문화권 예측 전통 자원 현황	3
3. 스승의 날 관련 역사의 의미	17
4. 보유 자원의 잠재력과 인성교육과 연계성 검토	17
5. 관련 사례분석	17
6. SWOT분석	17
III. 개발구상과 사업계획	22
1. 개발구상	25
2. 개발전략	29
3. 사업계획	17
IV. 사업추진방안	22
1. 사업추진방안	22
2. 관리운영방안	25
V. 건립 타당성 및 지역파급효과	22
1. 건립타당성	22
2. 지역파급효과	25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논산의 기호예학 및 스승의 날 발원 등 역사적 배경 및 가치를 재조명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나아가 현실참여와 실천덕목을 강조하는 기호유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논산의 예학전통을 교권회복, 청소년 인성 함양 등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 정립과 연계하는 지역문화프로젝트의 추진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산시의 유교와 스승 관련 특화자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를 기호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 논산시 문화관광여건 분석
- 기호유교문화권 예학 전통 자원 현황
- 스승의 날 관련 역사의 의미
- 보유 자원의 잠재력과 인성교육의 연계성 검토
- 개발구상 및 사업계획
- 사업추진방안
- 건립타당성 및 지역파급효과

II. 현황분석과

1. 논산시 문화관광여건 분석

1) 문화관광자원

(1) 계룡산 국립공원

- 계룡산은 1968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계룡산은 논산시,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충남 제일의 명산이며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논산시는 상월면의 북동쪽이 계룡산과 접해 있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설경]

- 계룡산의 명칭은 산 능선의 모양이 닭의 벼슬을 머리에 쓴 용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계룡산은 산세나 경치가 아름답지만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명산이며 이런 연유로 인하여 무속신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산으로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정진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산으로 유명하다.
- 계룡산에는 주봉인 천황봉을 비롯하여 삼불봉, 연천봉, 관음봉 및 십여 개가 넘는 봉우리, 기암괴석과 서쪽으로는 용문폭포, 동쪽으로는 은선폭포, 남쪽으로는 암용추, 솟용추 폭포 등 명소가 많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 계룡산은 봄에는 동학사 진입로의 벚꽃터널(일명 벚꽃축제), 여름에는 계곡의 신록,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등이 장관을 이룬다. 계룡산에는 풍광이 뛰어난 8곳이 있는데 이곳을 계룡8경이라 한다.
- 제1경은 천황봉 일출, 제2경은 삼불봉 설화, 제3경 연천봉 낙조, 제4경 관음봉, 제5경 동학사계곡 신록, 제6경 갑사계곡 단풍, 제7경 은선폭포 운무, 제8

경 남매탑 명월

[계룡산의 문화유산]

구 분	내 용
국 보 (2점)	갑사삼신괘불탱(298),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299)
보 물 (7점)	갑사철당간 및 지주(256), 갑사부도(257), 갑사동종(478), 월인석보판목(582), 청량사지 5층석탑(1284), 청량사지 7층석탑(1285), 신원사 종악단(1293)
지방 문화재 (9점)	신원사 5층석탑(31), 갑사석조약사여래입상(50), 갑사대웅전(105), 갑사사적비(52), 갑사석조보살입상(51), 갑사대적전(106), 갑사강당(95), 신원사대웅전(80), 상신리당간지주(94)
천연 기념물 (6점)	팔색조(204), 사향노루(216), 붉은배새매(323), 황조롱이(323), 소쩍새(324), 술부영이(324)
사 할 (3개소)	동학사, 갑사, 신원사

(2) 논산 8경

- 제1경인 관촉사는 온진미륵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시대 석조미륵보살입상과 보물9호인 석등을 비롯하여 오층석탑과 배례석이 미륵불을 위시하여 일렬로 불당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 제2경인 탑정호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잉어, 쏘가리, 메기 등 담수어종이 풍부하고, 낚시는 물론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등 수상 레포츠에도 매우 적합하다.
- 제3경 대둔산은 기암절벽 등 웅장한 형태가 매우 아름다우며 곳곳에 특성을 지닌 계곡들이 맑고 갇가지 비경들을 가진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우고 있다.
- 제4경 계백장군 전적지는 논산시 부적면 신흥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백장군 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제5경 쌍계사는 불명산이란 산록의 동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물 408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이곳에 있다.
- 제6경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백제를 평정한 기념으로 936년 조영한 사찰이다.
- 제7경 옥녀봉과 금강의 옥녀봉은 강경읍 북옥리 약 80여m 정도의 야산으로,

로, 봉우리 정상에 오르면 사면이 확 트여 강경읍내와 산 아래로 굽이치는 금강을 바라 볼 수 있다.

- 제8경 노성산성은 동·북·서면을 합석을 다듬어 네모지게 쌓았고, 상봉(上峰)에는 장대지(將臺地)로 추정되는 곳과 동벽으로 약간 내려온 곳에 봉수대로 보이는 곳이 남아 있다.

[논산 8경]

구 분	내 용
1경 관촉사	논산시 관촉동 반야산 중턱에 있는 관촉사는 공주 마곡사의 말사로 경내에 있는 미륵보살은 온진미륵으로 널리 알려진 이 거대한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로 알려져 있다.
2경 탑정호	논산시 부적면, 가야곡면 일원에 있는 탑정호는 제방길이가 573m, 높이 17.8m로서 충남에서는 예당저수지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최대 3천만 여톤의 담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탑정호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잉어, 쏘가리, 메기 등 담수어종이 풍부하고, 낚시는 물론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등 수상 레포츠에도 매우 적합하다.
3경 대둔산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일원의 대둔산은 해발 878m로서 부근의 오대산, 월성봉, 천등산 등과 함께 노령산맥의 잔구군을 형성하며 수십 개의 봉우리가 약 1km에 걸쳐 있다. 기암절벽 등 웅장한 형태가 매우 아름다우며 곳곳에 특성을 지닌 계곡들이 맑고 갇가지 비경들을 가진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우고 있다.
4경 계백장군 전적지	논산시 부적면 신흥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백장군 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백장군은 백제 말기 성충, 홍수와 더불어 3층신의 한 눈으로 추앙 받고 있다.
5경 쌍계사	쌍계사는 논산의 남방 대둔산의 북쪽 산곡간에 위치한 큰 사찰이다. 이 사찰은 불명산이란 산록의 동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물 408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이곳에 있다. 이 대웅전의 꽃무늬창살은 그 기교가 신비에 가깝다. 현재 쌍계사의 대웅전은 보물 40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경 1.82m의 대형 법고와 전패 2개가 경내에 보존되어 있다.
6경 개태사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백제를 평정한 기념으로 936년 조영한 사찰이다. 이러한 창건 연유로 인해 사찰 경내에는 태조의 영정을 모시는 진전(眞殿)이 있으며, 보물219호인 개태사지 석불입상과 충남도 민속자료 1호인 개태사지 철학(술가마), 석탑 등이 있다.
7경 옥녀봉과 금강	옥녀봉은 강경읍 북옥리 약 80여m 정도의 야산으로, 봉우리 정상에 오르면 사면이 확 트여 강경읍내와 산 아래로 굽이치는 금강을 바라 볼 수 있다. 이곳은 산수가 아름다워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며 놀다갔다는 전설이 있는 지역으로 달 밝은 밤 금강에 비쳐진 옥녀봉의 자태는 청순한 선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8경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일원의 노성산성은 둘레 894m, 성벽높이 4~7m의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은 자연지세를 잘 이용하여 약 1km를 석축으로 거의 완벽하게 쌓았다. 노성산성은 동·북·서면을 합석을 다듬어 네모지게 쌓았고, 상봉(上峰)에는 장대지(將臺地)로 추정되는 곳과 동벽으로 약간 내려온 곳에 봉수대로 보이는 곳이 남아 있다. 성내에는 우물지, 건물지가 있으며 백제시대 와편, 토기편과 고려·조선시대까지의 각종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3) 근대 문화자원 : 강경포구

- 현재 강경읍에는 논산시와 부여군을 관할하는 법원 및 검찰청과 논산시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소재하고 있어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읍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강경 갑문(일제강점기)]

- 강경포구와 관련하여서는 1918년의 포구 사진 자료가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시대 갑문(閘門)의 흔적과 일부 건물들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도 포구 주변의 시장은 젓갈시장으로 유명하다.



[강경역(1930년대)]

[강경읍 근대건축물 현황]

건물명	건립년대	건물명	건립년대
강경 북옥감리교회	1932년이후	신광양화점	1932년이후
대동전기상회	1932년이후	남일당한약방	1932년경
한일은행강경지점	1911.09.	강경공립보통학교강당	1922.10.
한성참고회사강경출장소	1906.12.	강경상고교장사택	1931.12.
강경중앙천주교회	1932년이후	강경화교학교	1932년이후

2) 문화시설 및 행사 현황

(1) 문화·예술·체육시설 현황

- 논산시의 문화시설은 공공시설로 문화예술회관 1개소, 문화원 1개소, 공공도서관 3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시설로 극장 1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여가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설물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현황]

구 분	공 공 시 설					민간시설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공공도서관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극장
개 소	1	1	3	1	1	1

구 분	신 고 체 육 시 설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썰매장
개 소	1	25	1	1	4	-	1	13	43	8	1

자료 : 논산시, 논산시 통계연보, 2011.

- 사회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은 1개소가 유일하여 도시민의 생활체육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 민간체육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점용하여 영리위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문화축제 현황

- 논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는 문화관광축제인 강경 전통 맛갈짓 축제, 논산 딸기 축제, 추억의 병영 축제, 연산 대추 축제, 양촌 꽃감 축제, 연산 백중놀이, 상월 주곡리 장승제 등이 있으나, 관광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축제가 부족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축제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논산시 주요문화축제 현황]

행 사 명	행 사 내 용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	• 1930년대 강경의 수산물 및 젓갈시장이 성시를 이루었으며, 현재 전국 최대의 젓갈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강경 맛깔젓 상인협의회에서 매년 10월경 개최하는 문화관광축제
논산 딸기 축제	• 전국 딸기 15%의 주산지로서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측로에 만개한 벚꽃의 아름다움과 연계한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
추억의 병영 축제	• 연무읍을 중심으로 육군훈련소에서 매년 5월경 펼쳐지는 추억속의 병영축제
연산 대추 축제	• 연산장터와 연산유림회관 주차장에서 매년 11월경 펼쳐지는 대추를 주제로 하는 특산물 축제
양촌 꽃감 축제	• 양촌 인내장터 일원에서 지역 특산물인 꽃감을 주제로 하여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축제
연산 백중놀이	• 연산면 체육공원에서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날 펼쳐지는 5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
상월 주곡리 장승제	• 상월면 주곡리 입구에서 매년 음력 1월 14일 마을 발전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

3) 지역특산물과 특색음식

- 논산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은 농·특산물이 많고, 이들의 가공식품으로 종가의 장류, 향토음식 등이 있다.

[논산시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 현황]

구 분	명 칭
지역 특산물	농축산 특산물 청과류 : 양촌딸기, 부적사과, 광석배, 연산포도, 노성메론, 은진 복숭아, 성동·노성·은진의 방울토마토 견과류 : 양촌꽃감, 연산대추, 양촌밤 농산물 : 계룡산더덕, 상월 고구마, 황산벌특미, 가야곡 밭고구마, 양촌 고사리 축산물 : 연산오골계
	가공식품 벌곡고향참기름, 강경 맛깔젓, 가야곡왕주, 양촌막걸리 상월 건조주에, 부적 찰쌀보리, 광석연미향사과식초, 성동 생생포도즙, 양촌 감식초, 연산호대감차
	명가의 장류 명재종가(된장, 간장, 고추장, 참게장), 신득재가(된장, 간장, 고추장, 집장)
향토 음식	연산 오골계백숙, 강경 위어회, 강경 황산 황복탕, 강경 황산 메기탕, 탑정호 붕어찜, 장어구이, 은진청포묵, 은진지네닭, 노성참게장, 순대, 도토리묵

4) 관광업체 및 지원 시설 분석

(1) 관광사업체 현황

- 관광편의 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관광 유흥 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 토속주 판매업 등이 있다.
- 관광 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 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또다시 종합관광호텔업과 일반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관광호텔이 오락이나 공연시설을 갖출 수 없는 중·저가의 숙박위주로 운영되는 호텔로서 등급을 정하지 않는데 비해, 종합관광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2007년 현재 논산시의 숙박시설은 소규모 관광호텔인레이크힐호텔과 연무그린관광호텔, 조선호텔 등이 연무읍과 취암동에 있으며, 기타 여관과 여인숙 등 영세한 숙박시설이 있다.

[논산의 호텔업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최초 등록일	등 급	객실수	주 소
레이크힐호텔	박병준	00-07-27			가야곡면 종연리 148-9
연무그린관광호텔	김차준	95-07-05	3등급	49	연무읍 황화정리 976
조선호텔					취암동 1044-1

-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업체는 2006년 현재 국내여행업이 13개소, 국외여행업이 1개소 총 14개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 논산시의 관광식당업은 2곳이 등록되어 있다.

[논산의 관광식당업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등록일	등록 번호	주 소
레이크 힐	백병준	00-07-27	라-10-6호	가야곡면 종연리 148-9
이 리 스	김동면	00-11-27	라-10-08호	부적면 신평리 159-5번지

(2) 논산시 그린투어 현황

- 논산시의 그린투어는 체험의 종류와 시기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논산의 주요 특산물인 딸기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농산물과 공예품, 민속체험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교문화권의 특성에 맞게 양반가 숙박 체험과 전통예절 체험이 특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산시 그린투어 종류별, 시기별 운영현황]

구 분	시 기 별	장 소 별	농 가 수
딸 기	12월~5월	양촌면 도평리 일원	10농가
		광석면 사월리 일원	2농가
		은진면 시모리 일원	9농가
		연무읍 죽본리 일원	3농가
		노성면 화곡리 일원	3농가
고사리	4월~5월	논산시 관촉동 일원	2농가
포 도 (멜라웨어)	4월~5월	양촌면 채광리	경희농원
누 에	5월중~6월중 8월중~9월중	연무읍 마전리 일원	2농가
포 도 (캠벨)	8월~9월	상월면 상도리	상도마을
밭고구마	9월~10월	가야곡면 묵곡리 일원	7농가
사 과	9월~10월	가야곡면 산노리	2농가
알밤 줍기	9월~10월	가야곡면 산노리	해오름농장 놀외농장
복숭아, 자두	7월~8월	양촌면 반암리	반암농장
방울토마토	연중가능	양촌면 신기리	신기농장
		성동면 개척리	1농가
		노성면 화곡리	1농가
		은진면 성평리	1농가
국 궁	연중가능	광석면 사월리	1농가
민박, 식사	연중가능	강경읍 중앙리	덕유정
양반가숙박	연중가능	양촌면 도평리	도정마을
목공예	연중가능	노성면 교촌리	윤증고택 (300년 고택)
천연염색	연중가능	은진면 시모리	해송공예
도자기	연중가능	양촌면 도평리	석림산방
전통예절	연중가능	노성면 화곡리	토감도예원
	연중가능	노성면 화곡리	토감도예원
	연중가능	연산면 송정리	양지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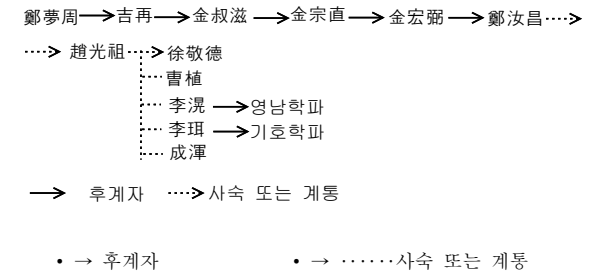
2. 기호유교문화권 예학 전통 자원 현황

1) 조선후기 유학의 발전과 논산

(1) 조선 성리학의 발전

- 한국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고 발달하였다.
- 16세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 화담 서경덕(1489~1546), 퇴계 이황(1501~1570), 남명 조식(1501~1572), 율곡 이이(1536~1581), 우계 성혼(1535~1598) 등
- 퇴계학과와 율곡학파의 형성 : 특히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학문은 그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확고한 학파로 자리 잡았고,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중심이 되었다.

[주요 유학자 계보]



(2)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로서의 기호학파

- 기본적인 정치 구도 :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 선조대에 사림정치가 실시되면서 영남계의 동인이 우세하여 일시 정권을 담당하였으나,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되어 영남 남인계(경상좌도)의 유성룡은 임진왜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영남 북인계(경상우도)의 정인

홍은 서인계의 인조반정으로 퇴출당하였으며, 인조반정 이후에는 대체로 기호계의 서인(노론)이 한말까지 지속적으로 정권을 주도하였고, 기호남인이 야당으로 병립하였다.

- 논산에서는 율곡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명재 윤증 등이 배출되었으며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송시열, 권상하 등이 논산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많은 기호유학자가 활동하였다.

17세기 이후 한국 유학사, 정치사의 중심지

- ▶ 한국 전통예학의 1번지
돈암서원과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노강서원과 윤선거, 윤증
- ▶ 기호유학의 중심지

- 노·소론의 중심서원인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이 건립되어 두 서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금강유역에는 이들의 문화와 관계된 누정과 서원이 다수 존재한다.

(3) 기호학파의 산림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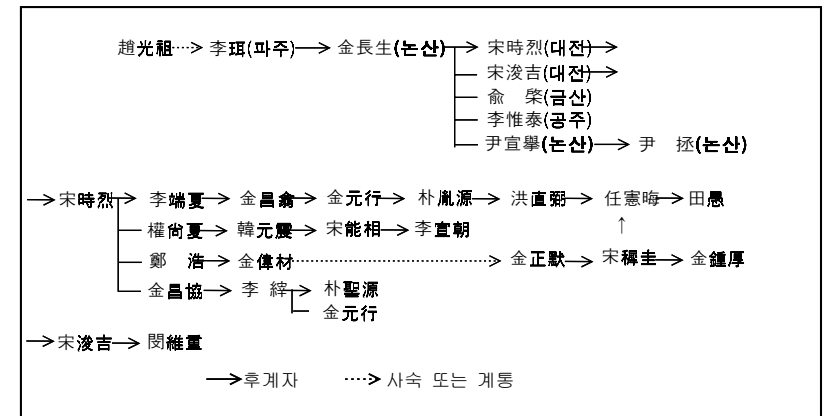
- 산림문화의 시기 :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절정이었던 17세기에, 주도적인 위상을 점하는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논산지역 출신이 절대 다수로서,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도 예외가 아니었다.
- 산림의 의미 :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가 초빙한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 산림의 영향력 :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하여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이다.

- 산림의 의의 :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받았다.

-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 :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 충청도 출신의 산림학자 :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유성), 윤순거(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유계(금산),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송기후(회덕), 이상(전의), 윤증(노성), 권상하(청풍), 이기홍(연풍) 등이다.

[기호학파의 주요 유학자 계보]



■ 산림 문화의 중심지 논산

-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절정이었던 17세기에, 주도적인 위상을 점하는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논산지역 출신이 절대 다수로서,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도 예외가 아니었다.
-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 :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 충청도 17명 중에는 논산 출신으로 김장생(연산), 김집(연산), 윤순거(노성),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윤중(노성) 등이 있다.
- 17세기 이후 시대배경과 논산지역 사림의 역할 : 17세기는 인조~숙종대에 걸친 봉당정치시기로 사회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때, 정국은 16세기말 퇴계와 율곡이 조선성리학을 정립한 후, 조선성리학에 입각한 이상사회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예치(禮治)를 실현해 가던 시기로, 서인 남인이 서로 이상사회를 이루는 방법을 놓고 이념논쟁을 해가는 봉당정치를 이루었다. 이때 김장생, 송시열, 윤중 등의 논산지역 산림들은 조선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자주적인 개혁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현대적 의의

- 활용의 기본 방향 :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서원이나 향교, 고택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을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유교)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개개인의 인격과 도덕성,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의 덕목이 강조될 “미래 지성”으로 더욱 중시될 것이다.
- 예학정신과 춘추의리 정신의 인정문화와 절의정신은 더욱 주목될 가치이다.

2) 논산시 유형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 충남의 유교문화재 시·군별 지정현황을 보면 논산에 가장 많은 유교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 논산시에는 60건의 문화재가 국가 및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논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중 유교문화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약 184건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에 따른 임의 분류로서 한 개인의 묘와 묘비가 1건, 선정비군은 비석군 1건 등의 방식으로 건수를 계산한 것이다.
- 읍면별 유교문화재 현황을 분석해보면, 연산면에 51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다음은 노성면이 33건으로 많다. 연산면은 조선시대 연산현의 중심지역이고 노성면은 노성현의 중심지역로 각각 논산지역 유교문화권 형성의 터전이 된 지역이다.
- 논산시에서 지정한 유교관련 ‘향토유적’ 은 고택 2건, 묘소·묘비 4건, 사당·영당·제실 6건, 서원·사우 6건, 유물 3건, 정려 2건, 누정 1건으로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당·영당·제실 및 유명 인물의 묘소 및 서원, 사우, 정려 등을 총 망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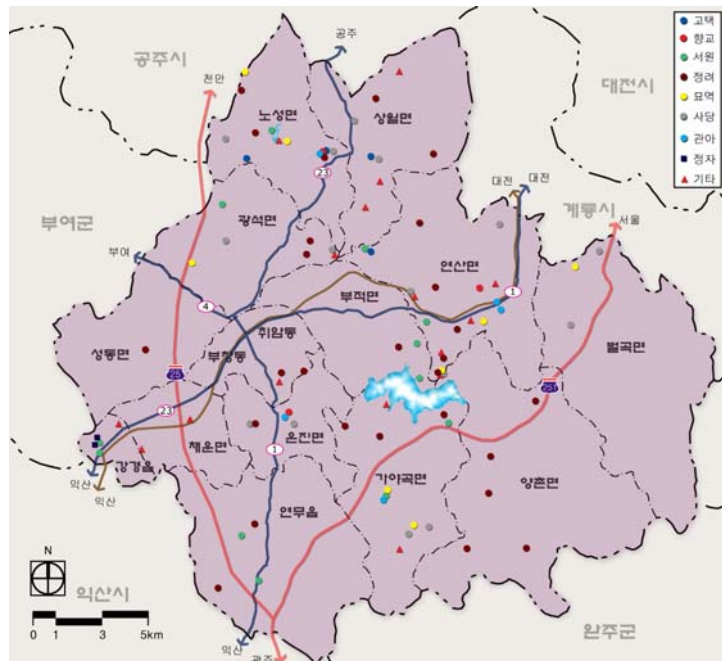
[논산의 지정문화자원 현황]

지 정		전체	유교자원	총계
국가지정	국보	0	0	유교/전체 60/88
	보물	7	3	
	사적	2	1	
	사적 및 명승	0	0	
	천연기념물	1	0	
	중요무형문화재	0	0	
	중요민속자료	2	2	
	소계	12	6	
도지정	유형문화재	23	22	
	무형문화재	1	0	
	기념물	15	7	
	문화재자료	33	23	
	민속자료	4	2	
	소계	76	54	

※논산시지정 향토유적 30건 중 유교문화재는 24건이다.

- 보물 3건은 모두 기록문화유산(성주도씨 종중문서「보물제724호」, 남양전씨 종중문서「보물 제727호」, 윤증초상일괄「보물 제1275호」)이고, 중요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는 명재고택과 명재윤증가의 유품, 사적은 돈암서원으로 돈암서원을 제외한 문화재가 모두 문중에 가보로 전승되었다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이다.
- ‘도지정유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자료’의 수가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서원, 사우, 재실, 영당 등으로, 유교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 논산시에서 지정한 유교관련 ‘향토유적’은 고택 2건, 묘소·묘비 4건, 사당·영당·재실 6건, 서원·사우 6건, 유물 3건, 정려 2건, 누정 1건으로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당·영당·재실 및 유명 인물의 묘소 및 서원, 사우, 정려 등을 총 망라하였다.

[유교문화재 분포도]



[논산의 유형별·읍면동별 유교문화재 현황]

	강경읍	연무읍	가파면	광석면	노성면	벌곡면	부적면	상월면	성동면	양촌면	연산면	은진면	채문면	부창동	취암동	총계
관아 시설			1		2						3	2				8
향교					1						1	1				3
서원	1	2	3	1	1 (학당)		2				2					12
서원시설											3					3
사우				2	2			2			1	1				8
사당·영당·재실			3		5	2	1	3			8	1				23
정려		3	4	2	3	1		5		5	6	1			2	32
누정	3				1											4
고택	1	1			3			1			1					7
묘소·묘비		1	3	1	3	2		4		1	10	1				26
선정비			2	1	1	1		1		1	4	2				13
충효비		1					1			3		2				7
신도비				1	5	1		2			4	1				14
유허비							1				1					2
기타비		1	2		2											5
유물			1		3		2	1	1		5					13
유허지											1					1
기타					1						1				1	3
합계	5	9	19	8	33	7	7	19	1	10	51	12	0	0	3	184

※ 기 조사된 유교문화유산 184건 중 지정문화재 60건, 비지정문화재 124건이다.

3) 논산 유교문화자원의 특성과 활용방향

(1) 논산유교문화자원의 특성

■ 기호유학의 본산

- 조선시대 경기도와 충청권 일대의 성리학자 일군은 율곡 이이의 학맥을 이은 기호학과를 형성하였고, 연산에서 이이의 적통을 이은 김장생·김집이 배출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사사받은 기라성 같은 인물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었다.
- 율곡 이이에서 비롯된 기호유학은 퇴계 이황의 영남유학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게 되었는데, 사상적 차이는 문화의 차이를 낳아 호서지방과 영남지방의 지방색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연산과 노성은 물론이고, 인접한 여러 고을의 사족들은 자연스럽게 김장생·김집의 학풍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수대가 지나도록 두 현인은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그리하여 이들을 제향한 연산의 돈암서원은 충청우도의 우두머리 서원으로 강력한 위상을 보이게 되었다.
- 기호학과와 맥을 이은 사족집단은 봉당정치의 가운데에서 '서인'으로 집결하여 활동하였다. 서인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 충청우도(현재의 충남 일대)에 근거지를 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돈암서원을 출입하며 서원에서 정치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였다.
-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도 바로 논산에서 이루어졌고, 노론과 소론을 대표하는 인물과 서원 등이 모두 논산에 남아있다.

■ 예학의 본고장

- 김장생·김집·윤증 예학의 가치
 - 첫째, 도덕 수양을 우선시 하는 철저한 수신(修身) 위주의 예학
 - 둘째, 가례 중심, 특히 상제례 위주의 예학
 - 셋째, 統의 수립을 중시하는 종법주의 예학
 - 넷째, 철저한 고증과 예정신에 따른 비판적 예학

“우리나라 예는 중국과 크게 다르고, 또 인정에 맞게 만들어 지는 것이

니 인정을 막고 고제(古制)에만 집착하여 우리나라의 常行之節을 무너뜨리겠는가”(김집)

- 다섯째, 계통성과 실용성이 강한 예학

“초학자(蒙學之士)도 책을 열면 환하게 알아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하기 위함”(김장생의 『상례비요』 찬술동기)

○ 예학의 현대적 의의

- 부형의 자애와 자제의 효도를 바탕으로 가족의 친목과 경제 유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조선 예학을 번문육례(繁文縟禮)나 공리공담으로 평가하고, 극복되어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상에 담긴 인간성 신뢰와 인도적 사회 건설은 오늘날에도 계승해야 할 정신이다.

○ 기존학설의 복합 - 사회윤리 규범을 제도화 하였다.

■ 산림문화의 중심지

- 호서인 스스로 유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유교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부정적 인식의 극복과 탈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서의 유교문화가 영남에 비해 다소 뒤늦기는 했지만, 퇴계와 율곡의 후학들에 의해 영남학과, 기호학과가 성립되어 학문의 깊이가 더해간 17세기 이후에는 중앙정계와 학문세계를 호서유학이 주도하였다.
- 이 시기에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도학이 정립되고, 의리학이 발달했으며, '이기심성론' '예론' '인물성동이론' 같은 성리학적 논쟁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山林의 존재가 주목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 특히 17세기를 주도한 중심인물들은 호서의 선비였다.
- 선비중의 선비 17세기 '山林' 38명중 17명이 충청인이고, 이중 6명이 논산(연산, 노성) 출신이다.

■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유교문화유적

- 조선시대 지방 관학교육의 중심지였던 향교가 호서지역(충청남·북도, 대전)에 56개소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향교 전체(234개)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서지역의 면적이 전국의 1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향교의 밀

집도가 높은 편이다.

-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면적이 전국의 8%에 불과한데, 현존 향교수는 36개소(전국대비 15%)에 달하여, 향교의 밀집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향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조선시대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사우의 건립현황을 보면, 충청도에는 모두 118개소이며,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9개소나 되었다.

- 논산은 사액서원 3개소, 비사액 서원·사우 8곳

■ 명문 종가문화 유적 다수

- 호서지역의 3대 명문가에 꼽히는 연산의 광산김씨, 노성의 파평윤씨 종가의 전통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 봉당정치 시기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결정적 계기가 논산 땅에서 벌어짐에 따라 '서인의 문화'와 '소론의 문화'의 정수가 각각 공존하고 있다.
- 각 문중의 고택과 재실 등의 시설물, 강학의 장소, 자손에 대한 교육, 서원, 등이 종가문화를 잘 보여준다.
- 연산면 고정리와 노성면 병사리에서는 종택 - 재실 - 정려 - 묘역 등이 한자리에 모여있어, 옛 선비의 삶과 죽음, 사후 자손들의 선조 현양활동의 결과물 등을 한번에 접할 수 있다.

■ 충효열 유적 다수

- 충절인물과 학자를 제향하는 서원과 사우, 충신·효자·열녀의 정려 등이 다수 현존한다. 그러나 그동안 유교문화자원은 고고유적이나 백제유적에 비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고학 중심의 문화유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형의 유교문화재도 함께 조사되는 정도였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매우 피상적이다. 『문화유적총람』(충남)의 금석문편상·중·하(1993), 『충남의 향교』(1999), 『충남의 서원·사우』(1999) 등은 조사결과가 비교적 자세하지만, 연구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 더군다나 유교문화의 꽃인 충효열 삼강과 관련 있는 유적의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유역의 문화에 대한 철저한 조

사를 통해 '금강문화권의 유교문화'를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개발의 잠재가치 높음

- 기초연구의 필요성 : 논산지역은 그동안 영·호남 지역에 비해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아직도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매우 많다.
- 유교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으로 개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논산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향

■ 기호유교문화권과 영남문화권의 비교

구분	기호유교문화권(호서내륙중심)	영남유교문화권(경북북부중심)	비고
대상 지역	· 6개 시·군 : 논산, 금산, 대전, 보은, 공주, 부여 · 면적 : 3,820.7km ² (전국총면적의 3.8%)	· 11개 시·군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 면적 : 10,771.3km ² (전국총면적의 10.8%)	호서내륙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의 약 1/3
유교 문화의 특성	· 을곡학파(이이) · 이기일원론과 주기론 · 서인계(노론·소론) · 조선 후기 여당(현실참여 강) · 호서내륙에서 중심인물 배출 ※ 다양한 학풍 공존 (人物性同異論爭) ※ 17세기 전국 山林 38명 중 17명이 호서(충청)출신	· 퇴계학파(이황) · 이기이원론과 주리론 · 동인계(남인·북인) · 조선 후기 야당(현실비판 강) · 경북북부에서 중심인물 배출	· 조선 후기 유학의 주류는 기호학파 · 호서내륙이 기호학파의 중심지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분포	· 호서지역(27개시·군, 16,558km ²)의 향교수 58개소, 서원건립수 135개소 · 호서내륙에 집중 분포 (논산지역이 중심지)	· 영남지역(45개시·군, 31,351km ²)의 향교수 71개소, 서원건립수 318개소 · 경북북부에 집중 분포(안동지역이 중심지)	· 면적대비 호서가 영남의 약 1/2 · 호서지역은 유교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미실시
정책	2006년까지 없음 (백제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무관)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1999~2000, 약 6억원) · 11년간(2000~2010) 1조 8,681억원을 투자예정 · 경북도청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설치하여 사업 수행, 2006년부터 경북도청에서 직접 주관	
종합 평가 및 제언	· 한국유교문화권의 올바른 가치인식을 위해서는 영남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균형적인 투자 필요 ·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에 준한 개발계획 필요 · 호서 내륙의 유교문화권(논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위 표는 임선빈, 『충청남도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관리방안』(충남발전연구원, 2002)을 참조

■ 유교문화자원의 활용

○ 활용의 기본 방향

-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서원이나 향교, 고택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을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유교)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개개인의 인격과 도덕성,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의 덕목이 강조될 “미래 지성”으로 더욱 중시될 것이다.

○ 예학정신과 춘추의리 정신은 더욱 주목될 가치이다.

○ 논산의 유교문화 유산은 “내면적, 예학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한국 및 충청도의 문화관광 정책에서 직시하여야 할 강점이다.

○ 논산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은 개발 잠재가치가 매우 높다.

- 기초연구의 필요성 : 논산지역은 그 동안 영·호남 지역에 비해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아직도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매우 많다.

- 유교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으로 개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선비문화의 함축성

- 논산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문화유적들은 논산 선비정신이 지닌 특징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 한국 선비문화의 정수

- 논산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은 일견 특정 가문(광산 김씨, 파평 윤씨), 인물(사계 김장생, 명재 윤증) 관련 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유교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화유산이다.

○ 사림 양반문화의 종합성

- 논산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은 조선시대 양반, 선비들이 영위한 문화의 제 양상과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논산을 중심으로 충청지역 유교문화 개발이 가능하다.

- 충청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은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대전·공주·부여·금산·보은 등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집중개발이 가능
- 특히, 충청도의 내륙지역인 논산, 대전, 보은, 금산 등은 17세기 기호학파의 핵심적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 예컨대 서원·사우의 경우 논산·금산·부여 등에 각각 11개소(도합 36개소)나 있는데, 특히 논산에는 대원군의 서원정리시 훼손되지 않았던 서원이 2개소나 있다. 돈암서원은 조선후기 서인(노론)의 중심서원이었으며, 노강서원은 소론의 중심서원으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을 기호지역 유교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을 실시한다면, 문화적인 잠재가치가 매우 높다.

○ 논산 유교문화 개발의 강점

- 한국유교문화권의 올바른 가치인식을 위해서는 영남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균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에 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 특히 논산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앞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3. 스승의 날 관련 역사의 의미

1) 정의 및 배경

(1) 정의

- 매년 5월 15일 교원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

(2) 배경

- 스승의 날 행사는 1963년 대한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Junior Red Cross, 약칭 J.R.C.) 충청남도 강경여자고등학교 지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강경여자고등학교 J.R.C. 단원들은 병환으로 오래 자리에 누워 계시는 선생님을 방문하여 정성껏 간호와 문병을 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 1963년에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 은사의 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1964년 5월 17일에 개최된 전국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J.R.C.) 총회에서 5월 26일의 은사의 날을 정식으로 '스승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 그러자 1965년 대한교육연합회 청소년 윤리위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청소년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정된 그 정신과 취지에 찬성하였으며, 협의한 결과 그 날짜를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다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서를 J.R.C.에 제출하였다.
- 1965년 4월 23일 제15차 J.R.C. 총회에서는 5월 15일을 다시 스승의 날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당시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에게 호소하여 제2회 스승의 날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스승의 날 행사는 각급 학교 및 교직원체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4년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스승의 날 부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승의 날 부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해 왔다.
- 마침내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스승의 날이 포함되면서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2) 내용 및 사례

(1) 내용

- 1982년부터는 스승의 날 기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렸는데, 이때 교육공로자를 정부에서 포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각급 학교 동창회,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데, 특히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 관계를 깊게 하는 한편, 은퇴한 스승 중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기도 한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

(2) 인접 국가사례

-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배출한 위인의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금은 ‘대통령의 날’로 통합되었지만, 과거의 워싱턴 탄신일이나 링컨 탄신일, 현재의 마틴 루터 킹 목사 탄신일이 그 예이다. 대만에는 공자 탄신일이나 손문 탄신일, 장개석 탄신일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정 인물의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스승의 날은 비록 ‘세종대왕 탄신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충무공탄신일’(4월 28일)과 더불어 한국에서 특정한 인물의 탄신일을 기념일로 하는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위인을 한국인들이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문(文)을 대표하는 위인은 세종대왕, 무(武)를 대표하는 위인은 이순신이라는 사실이 국가기념일에도 반영되어 있다.

4. 관련 사례분석

1)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

- 목적 : 남도문화와 예술에 대한 토양을 가꾸고 학생과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각급 학생들의 학예진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복합교육문화센터로의 역할을 마련함

구분	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 29,999 ●건축면적 : 8,936 ●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수용인원 : 2,640명 ●인력현황 : 총 35명 ●수영장, 대공연장, 소강당, 체육관, 체력단련실, 특별활동실, 어린이종합실

○ 프로그램

- 체험학습 : 문화예술체험학습, 너랑나랑 토요체험교실, 창의인성체험캠프, 청소년 상담교육,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
- 문화예술 :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 학습 동아리,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희망코리아 다문화교육
-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의 선호도와 수요를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공개 선발하여 최상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의 질을 높임으로써 수강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 충청남도 학생교육문화원

- 목적 : 1997년 설립한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학생종합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미래 예술 산업의 주역이 될 예술영재와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과 문화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자 함

구분	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16,145㎡ ●건축면적: 10,334㎡ ●연 면 적: 14,006㎡ ●규모 : 지상 3층 ●수용인원 : 2,640명 ●대공연장, 소공연장, 기타시설(전시실, 도서관)

- 프로그램
 - 예술프로그램 : 학생예술프로그램, 교직원 예술프로그램, 교직원예술동아리
 - 예술단 :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국악관현악단, 교사국악관현악단, 교직원합창단, 학부모합창단
 - 독서프로그램
 - 북스타트, 주말가족예절체험학습, 찾아가는 예술교실프로그램
-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술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수강생들의 전시회와 발표무대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공감형 예술 축제로 육성하고자 함
- 또한 충남의 초등 예술영재육성을 위하여 전공분야의 실기와 이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강사들이 개별지도를 통해 다양하고 알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청학동예절학교 고목당

- 목적 : 지리산 대자연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전통예절학교. 초등학교생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천자문과 판소리, 전통놀이 등을 배우며, 우리 선조의 생활방식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시설
 - 고목당서원(대안학교), 교육관, 생활관, 식당, 화장실, 샤워실
 - 고목당 서원은 청학동 인성 대안학교로 학습자 개개인의 고유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개발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분노조절프로그램, 사회성 증진프로그램,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아동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심신계발훈련, 상시상담프로그램 등 인성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
 - '글알 깨우침(한문교육) : 사자소학, 추구, 명심보감, 사서삼경, 서예
 - 참살이공부(인성교육) : 고전강의, 폐목명심좌, 효란 무엇인가?
 - 사람 사랑과 공부(예절교육) : 가정, 학교, 사회예절
 - 몸사랑 교육(체험교육) : 견학, 전통놀이(투호, 윷놀이 등), 천연염색, 대나무잎배만들기, 인절미만들기, 활쏘기, 줄넘기
- 청학동 예절학교 고목당은 인성, 예절교육의 장으로서 서당, 예절전통체험, 방학캠프, 대안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



4) 한국국학진흥원

- 목적 :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 및 멸실의 위기에 처해있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학자료의 과학적인 보존방법을 모색하고 전통문화와 사상에 기초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1995년 12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1996년 11월 제1회 한국학 대회를 열었으며, 2001년 10월 세계유교문화축제의 개막과 병행하여 공식적으로 개원하였음



-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유교문화관련 유물을 조사·수집하여 연구, DB구축 등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국학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유교문화전시관과 장판각, 생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퇴계관련영상물도 관람할 수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멸실위기에 있는 국학자료의 수탁, 국학 자료의 조사 및 정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보급, 종합적인 국학 연구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국학 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 전통문화 체험 교육 및 연수 등임
- 시설

구 분	내 용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박물관 4,413㎡, 장판각 1,402㎡ • 규 모 : 박물관(지하1층, 지상4층), 장판각(지상2층) 2동 • 시설 : 장판각, 전시실, 사무실, 보존처리실, 사회교육실, 수장고, 문화상품점 등 10개 전시실 (일반전시실 6, 주제전시실 3, 기획전시실 1)

- 유교문화박물관 : 전통문화의 중심인 유교문화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과 풍부한 볼거리를 꾸준히 발굴하여 전시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학자료 32만점(목판, 현판 62천장 포함)이 소장되어 있음

- 인성연수관 :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상 및 현대사회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미래 신한국을 이끌어 갈 정신적 좌표를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선진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 국악문화회관 : 한국국학진흥원에 체류할 희망하는 외부 연구자들과 국학진흥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교육연수생 그리고 전통문화의 현장을 체험하려는 분들에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프로그램
 - 연수프로그램운영, 지도자 양성과정, 연수과정(기업체관리자, 사회지도층, 청소년, 다문화가족, 해외동포 및 입양인)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고전국역자 양성 과정을 통해 고도서와 고문서를 국역할 수 있는 인원들도 양성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한국학 또는 유교문화 관련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학의 세계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5) 영주선비촌

- 목적 : 선비촌은 한국 유교문화발상지인 경북 영주 순흥 소수서원에 인접한 곳에 조성하여 옛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선현들의 학문 탐구의 장과 전통 생활공간을 재현하여, 우리고유의 사상과 생활상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되었음(충효의 현장, 교육의 현장, 전통문화의 현장)
- 선비촌은 해우당 고택 등 기와집 7동과 초가 5동을 포함하여,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자, 누각, 방앗간, 대장간 등을 재현해놓고 있으며, 선비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음
- 시설
 - 김문기가옥, 김상진가옥, 김세기가옥, 두암고택, 만죽재, 인동장씨 종택, 해우당 고택
- 프로그램
 - 선비촌 체험(단체, 개별, 외국인)
 - 한옥숙박체험(가옥/고택)
- 영주 선비촌은 숙박을 통하여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단체/개별관광객 및 외국인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전통예절, 전통혼례, 한지공예, 천연염색, 소달구지체험 등 전통문화체험과 인성교육 체험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최고의 체류형 전통문화 체험관광지로서 많은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5. SWOT 분석

1) 강점(Strengths)

■ 다양한 유교문화자원 분포

- 논산시는 기호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서원, 향교, 종택 등 유교와 관련된 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또한 유교와 관련된 인물자원이 풍부하여 유교관광 시설물 조성 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스승의날 발생의 역사적 당위성 보유

- 논산시는 스승의날의 발생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당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개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신 교육의 테마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자체의 강한 의지

- 충청남도에서는 북부권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인 남부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논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장소판축의 중요성 인식과 전략적 활용의지를 통해 높은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호유교문화권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군정에 접목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2) 약점(Weaknesses)

■ 노령화에 따른 추진 동력 부족

- 유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의 지역민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교문화를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 시 노령화에 따른 추진 동력이 떨어짐

-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현상 및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도시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함

■ 기호유교문화 중심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충청지역 유교문화의 중심지라는 지역 정체성이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논산 시민에게조차 알려져 있지 않음
- 유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남지역을 연상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무형문화자원이 많지 않음

■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등 인프라 미흡

- 최근 관광수요가 가족중심의 체류형, 체험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함
- 지역의 많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 기회(Opportunity)

■ 전통 문화에 대한 국가적 육성 의지

- 균형발전의 국정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충청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
- '유교문화'가 충청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음

■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잠재 수요 증가

- 세종시 이전과 대전시에 인접한 근교지역으로서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근교의 전원도시로의 발전 잠재력을 내포함
- 양호한 교통접근성 및 쾌적한 환경을 산촌주택 및 청정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의 계획 수립

■ 지역 내발적 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발적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에 따라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마련함

- 유교라는 브랜드 파워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잠재력과 내발적 발전 역량을 빠르게 발휘할 수 있는 곳임

4) 위협(Threat)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축 이동

- 내포신도시로의 충남 도청 이전에 따라 충남권 발전 중심축이 서남부권으로 이동되어 논산시를 포함한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의 불안 및 공동화 문제 야기

■ 영남지역 유사한 테마 개발 추진 중

- 경북 안동과 영주를 중심으로 유교를 테마로 한 다양한 시설이 건립되고 있거나 운영되고 있음
- 대분적인 유교관련 박물관 교육시설 등이 이미 건립되고 있어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Strength(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교문화자원 분포 • 스승의날 발생의 역사적 당위성 보유 • 지자체의 강한 의지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에 따른 추진 동력 부족 • 기호유교문화 중심지에 대한 인식 부족 •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등 인프라 미흡
Opportunity(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문화에 대한 국가적 육성 의지 •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잠재 수요 증가 • 지역 내발적 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축 이동 • 영남지역 유사한 테마 개발 추진 중

[그림 II-15] SWOT 분석 결과

III. 개발구상과 사업계획

1. 개발구상

1) 비전과 목표

(1) 비전

■ 기호유교문화권의 새로운 문화관광의 메카

"한국스승문화촌 건립"

(2) 목표

■ 기호유교문화가 녹아있는 교육형 테마공간 조성

- 옛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선현들의 학문 탐구의 장과 전통 생활공간을 재현하여, 우리고유의 사상과 생활상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2) 기본방향

(1)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교육문화 공간계획

- 기존 시설과 산립을 최대한 보존 활용하여 고풍적 느낌의 역사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동선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의 재료와 형태를 도입하여 계획하며, 옛 선비들의 삶을 체험하는 유교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대상지 주변으로 선비를 상징하는 매난국죽(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공간 구성

(2) 주제 부여를 통한 관광시설 개발로 미흡한 관광여건 마련

- 테마적 시설 도입으로 경쟁지역 타 관광지와의 차별성 부여
- 논산시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지향

(3) 연계 프로그램을 고려한 공간구조의 탄력성 및 확장성 극대화

- 연계 체험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의 규모를 충분히 마련하고, 전시관내 해당 프로그램과 유교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별도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효과 증대
- 유교 교육 장소와 체험 장소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공간의 확장성을 극대화

(4) 프로그램 지향적 공간배치 및 동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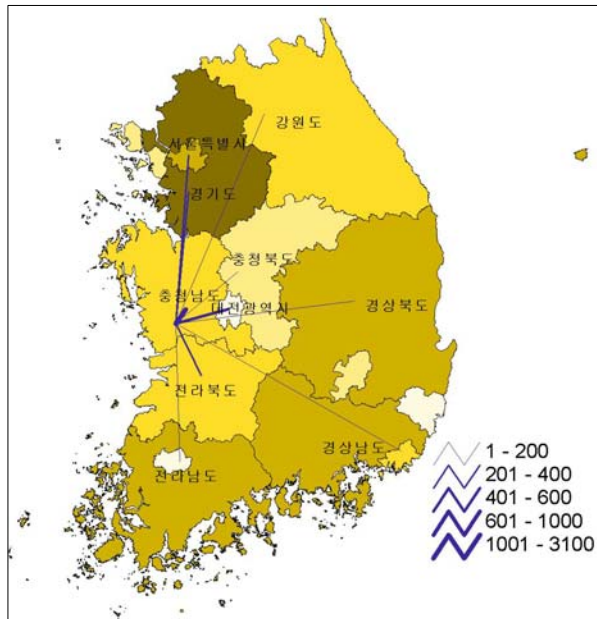
- 대상지내의 프로그램 개발 소재인 유교 관련 프로그램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간 연출
 - 전시 및 교육공간을 위한 광장, 전시관 등을 대상지 진입부에 조성
 - 실제적인 유교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녹아들 수 있도록 선형으로 스토리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지내에 순환 배치토록 함
 - 유교의 놀이와 풀이의 공간을 체험하여 사색과 교육의 공간을 통한 유교의 현대적 의미를 느끼도록 하고 공연활동과 체험활동이 가능토록 배치
-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축제프로그램이 각 주제별 공간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공간계획

2. 개발전략

1) 표적시장 선정

(1) 표적시장 세분화

- 동질적 욕구를 보이는 관광시장을 세분화한 후 개발목표, 개발주체의 인적·물적자원과 부지의 특성, 경쟁성 정도, 차별화 등에 따라 표적시장을 설정하고 표적시장의 욕구를 심층분석한 후 마케팅전략을 수립
- 표적시장은 주5일 근무제와 행정수도의 충남권 이전 시 발생하는 관광시장 변화를 반영하도록 함
- 권역별 시장의 선정은 2010년 교통부의 교통량분석자료를 활용하여 GIS통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논산시에 가장 많은 방문을 하는 지역은 충청권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전북권, 수도권 순으로 나타남



■ GIS 분석에 따른 방문객

구분	지역별	출근	업무	귀가	통학	쇼핑	여가	기타
서울특별시	2,153	122	804	544	52	62	381	189
수도권	1,539	95	595	382	31	44	257	135
강원도	71	5	28	17	1	2	11	6
충북	608	34	225	154	15	17	109	53
충남	15,406	706	5,322	4,037	497	452	3,044	1,349
대전광역시	2,746	123	941	722	91	81	548	240
전북	1,847	118	725	455	34	52	301	162
전남·광주	363	24	144	89	6	10	58	32
경북권	526	35	210	129	9	15	84	46
경남권	199	13	79	49	3	6	32	17
행태별	25,457	1,275	9,073	6,576	739	739	4,825	2,229

(2) 표적시장의 구조

■ 표적시장 선정의 전제

- 논산시 교육과 기호유교 체험관광지 개발은 단계별 개발로 각각의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표적시장을 선정·개발
- 단계별 개발전략
 - 1단계 : 투자재원 확보 및 시설개발 기간
 - 2단계 : 투자비회수 및 경상수지 개선 기간
 - 3단계 : 경상수지 확보 기간

■ 표적시장의 구조

[표적시장의 구조]

이용주체별 이용형태별		시설소유시장		시설이용시장	
		고소득층	중상소득층	저소득층	
투자비회수시장	교육·휴식 위주의 숙박관광시장	1차 표적시장 (시설투자재원 확보에 필요한 시장)	2차 표적시장 (투자회수 및 경상수지 개선에 필요한 시장)		
	당일 및 1박 위주의 수도권시장				
경상수지확보시장	2박 이상의 장기체류형 관광시장			3차 표적시장 (경상수지 확보에 필요한 시장)	
	1박 이하의 단기체류형 관광시장				

(3) 표적시장 선정 기본전략

■ 교육추구 학생단체 관광객 및 가족관광객의 적극 유입

- 시설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구상 단계에서부터 표적시장을 선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개발계획 수립
- 즉, 개발 대상지의 개발환경, 관광행태, 접근성, 주변관광자원 등을 고려하여 대상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시장을 선별하여 표적시장화

[시장 세분화]

구 분	시장 구분		시장 특성
지역별 시장세분화	1차 시장	대전, 충청권	• 인근 지역 특수 시설에 대한 높은 참여율 • 주말, 휴일 등 짧은 휴일을 활용한 관광 행태 특성 보유
	2차 시장	서울, 수도권	• 관광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소득수준이 높아 교육, 건강, 체험 등에 높은 관심 보유 •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활동 향유 • 국내 관광의 핵심 항유계층
	3차 시장	기타 전국권	• 실질 방문율은 낮은 편이고, 연휴 및 휴가철을 이용하는 빈도 높음
동반형태별 시장세분화	1차 시장	교육자 및 학생단체 관광객 (상시 프로그램 교육참가자)	•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중시 • 한 학년 단위의 이용이 주를 이뤄 대규모 단체 행태가 많은 편이나 최근에는 소규모의 학생단체 관광객 행태가 증가 추세임 • 평일 이용 형태
	2차 시장	가족관광객	• 교육과 체험을 중시 • 30~40대 부부와 아이 중심의 행태를 보이며, 부인과 아이의 의사결정 중심 • 주말, 연휴 위주의 이용 형태
	3차 시장	기타방문객	• 인접한 관광지 관광객 및 특수한 목적을 보유한 관광객 • 대규모 관광자를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행태, 사진 정보 획득률이 높고 신기성이 확보된 공간을 선호

(4) 표적시장별 대응전략

- 기호유교 스승문화촌 시설의 특성 및 성격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근거할 때, 본 시설의 주요 표적시장은 국내의 대표적 관광시장인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을 포함하는 근교도시권 및 충청권의 학생단체, 가족관광객이 참가자일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단체체험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확보와 더불어 대규모 인원의 자연스러운 체험동선을 위하여 집합장소와 이동통로가 체험프로그램 중간에 3~4개소씩 배치하여 단체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정체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또한 적극적 표적시장에 포함되지 않지만 논산시 관광객과 특별한 목적으로 논산시를 방문하는 특수목적 관광객이 포함됨
- 표적시장별로 별도의 대응전략 구축을 통해 계층별 이용욕구를 파악하여 공간배치상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표적시장별 대상이용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계획함

[표적시장 대응전략]

구 분	시장 구분	시장 특성
1차 시장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의 교육자 및 학생단체 관광객	• 친환경적 공간에서의 전시, 체험 등을 통한 교육적 효과 제고 • 소프트 프로그램 및 체계적 해설 프로그램 구축 • 단체관광객 수용 및 교육 체험을 위한 수용태세 구축
2차 시장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의 가족관광객	• 친환경적 공간에서의 전시, 체험 등을 통한 교육적 효과 제고 • 주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도입 • 명소로서 가족의 추억 만들기의 공간화
3차 시장	논산시 관광객 및 특수목적 관광객	• 인근 관광지에서의 접근체계 확보, 안내시스템 확충 • 관광 편의시설 확충, 관광 프로그램 확보

2) 도입활동 및 시설

(1) 도입활동 및 도입시설 결정과정

- 도입활동 및 시설은 개발전략과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본 계획대상지의 조건과 표적시장의 특성에 따라 도입 활동을 결정한 후 시설선정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도입

(2) 도입활동의 유형 결정

[유형 결정 과정]



■ 도입시설 검토

- 시설선정 시 중요 기준으로 도출된 지역자연조건, 개발주체의 의지, 주변지역 인문환경, 서비스 시설의 측면에서 검토하였을 때, 대상지내 도입이 요구되는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전시시설, 체험시설,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체험운동시설, 안내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등

<표 III-24> 기준별 도입시설 검토

기본 시설	지역자원 조건	⇒	유교문화교육 및 체험, 수상레포츠
	개발주체의 의지	⇒	숙박단지, 테마공원
	주변지역 인문환경	⇒	농촌체험마을, 연수시설
보조 시설	공공편의시설	⇒	숙박시설, 비지터센터, 휴게시설, 상업시설

■ 시장분석을 통한 도입시설의 선정

[시장분석을 통한 도입활동 및 시설의 결정]

활동	시장	선호 시설	세부 시설 검토
교육 문화	1차시장	- 스승기념 및 전시관	- 스승기념관, 한국교육전시관
	2차시장	- 연수원	- 교육 및 학생연수시설
	3차시장	- 도서관 - 교육자료실	- 기호유교도서관 - 스승 및 교육관련 자료실
숙박	1차시장	- 가족형 숙박시설	- 펜션, 콘도미니엄
	2차시장	- 단체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
	3차시장	- 고급 숙박시설(외국인), - 대규모 숙박시설 (수학여행단)	- 전통호텔, 펜션, 수련원, 콘도미니엄
레포츠	1차시장	- 수상 스포츠 시설	- 수상스포츠(수상스키, 보트, 카누, 낚시 등)
	2차시장	- 레저 시설	- 실외 레저시설(조깅, 산책,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
	3차시장	- 실내 레저 시설	- 실내 레저시설
쇼핑, 식음	1차시장	- 지역특산물, 기념품 - 지역 특산음식	- 지역특산물점, 기념품점 - 특산음식점, 주점
	2차시장	- 공산품 - 맛, 청결, 분위기 선호	- 할인점, 농수산물 매장, 일반 공산품 매장 - 카페촌, 먹거리촌
	3차시장	- 지역특산물, 기념품 - 지역 특산음식	- 지역특산물점, 기념품점 - 특산음식점, 주점
체험 및 관람	1차시장	- 유교 문화 체험 및 관람 - 지역 문화 체험	- 인접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시설 - 지역축제 및 문화 체험 시설
	2차시장	- 문화 체험	- 문화 강습 시설(화방, 도자기 공방, 전통음악 전수시설)
	3차시장	- 백제 역사 체험 및 관람 - 지역 문화 체험	- 인접 역사관광자원과 연계시설 - 지역축제 및 문화 체험 시설
기타	1차시장	-	- 관광안내소
	2차시장	-	- 피크닉 시설, 휴게시설
	3차시장	-	- 관광안내소 - 단체 활동 공간 - 외국인 통역시설

3) 공간 기본구상

(1) 공간구상 개념

■ 공간적 특성

- 논산시는 기호유학의 중심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 예상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광역교통체계 개선, 주5일 근무제 실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 등 대내외 관광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
- 논산시는 탐정저수지 등 수변경관자원이 수려해, 기호유교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수변형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임

■ 공간구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토지용도는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도로 변경이 필요
- 기호유교문화의 중심지인 논산시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공간계획 시 유교와 선비의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간구성 개념

- 공간구성 개념은 '체류형 교육체험 문화단지의 4계절 관광지'로 설정하고자 함
- 풍부한 유교관련 문화시설, 쾌적한 주변경관, 맑은 호수, 신선한 공기가 어우러진 심신의 수련과 재충전의 장소로 정신적 풍요로움이 있는 자연 속의 문화단지 조성
- 문화, 예술, 교육, 이벤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접하고 주말과 주중, 주간과 야간 등 언제나 즐거움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 지역 주민들의 공간이 관광지에 포함되면서 매력몰로서 역할을 하는 수용적

인 공간구정으로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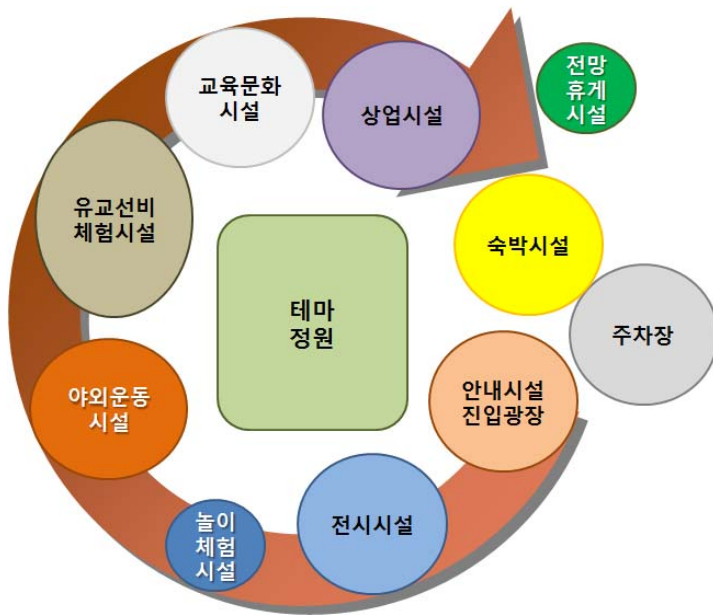
(2) 시설별 공간구상

- 시설별 공간구상은 기본적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주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상
- 세부적으로 먼저 진입부의 주차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의 스토리라인을 형성토록 계획하되, 입구에 박물관을 두어 전시시설 기능을 초입부에 배치하고, 이와 연계되어 각종 유교 및 선비 체험활동 및 운동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의 체험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유교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이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시설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시시설을 전면부에 배치하고 전시시설과 연계하여 놀이체험시설을 배치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후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각종 식음료 및 판매시설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기본적인 편의 및 위락기능을 충족시키고자 함
- 시설의 중앙은 사군자를 주제로 한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공간 전체의 경관성을 좋게 하고 유교 관련 교육과 체험 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함으로써 단지 내 주제성을 강화함
- 상업시설을 지나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되 특색있는 유교전통체험 숙박시설지를 조성하고 숙박시설 방문객과 당일 이용객의 동선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일정규모의 전통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차장과 상업시설 사이에 숙박시설을 배치하며, 숙박체험과 연계된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매력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획

(3) 동선체계 구상

- 동선체계는 토지이용 세부체계 수립 시 시설간의 위계를 고려하여 주요 차량진입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진입-체험-교육-위락-숙박-진출의 보행자 이용 측면의 동선체계와 각 시설지의 소방, 방재, 이벤트용 차량진입, 상업시설 물품출납 등을 위한 서비스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구상

- 차량 주진입은 넓은 가용지가 분포하는 대상지 내에 배치하여 당일이용객 위주의 대상지 개발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
- 차량으로 진입한 후 유교문화체험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하여 시계방향을 따라 진입공간 및 안내공간 위주의 유교전시, 선비체험, 유교교육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객 보행동선을 구상
- 긴급시나 서비스동선을 위해 대상지에 각 1개소의 서비스 차량동선을 확보토록 구상하고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방지를 위하여 블라드 등 차량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토록 함



[스승문화촌 공간구상 개념도]

3. 사업계획

1) 기본방향

- 시설은 각종 체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전시시설, 교육시설, 체험시설, 공연시설, 판매시설, 휴게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
- 관광휴양형 2종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구분에 따라 운동시설지, 숙박시설지, 상가시설지, 휴양문화시설지, 공공편익시설지와 녹지 및 기타용지로 구분

2) 시설별 계획

(1) 공공편익시설

- 공공편익시설은 마을내 도로, 광장, 주차장, 공공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소, 수변공원 및 실개천, 배수지 등으로 구성
- 대상지 진입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광장, 매표소 및 안내소 조성

(2) 숙박시설

- 기와집, 초가집 촌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주거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
- 1층은 저자거리와 유사하게 조성하고 2층은 숙박체험시설로 활용토록 계획
- 숙박시설 주변으로 산책로, 휴게쉼터 등 다양한 부대 편익시설 조성

(3) 상가시설

- 문방사우 체험 및 판매, 선비생활 체험과 동시에 이용객들에게 식음료 제공을 위한 저자거리를 조성하고, 상설 유교 관련 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저자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및 퍼레이드가 가능토록 유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2개의 복합동선을 통해 저자거리가 보다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토록 계획

(4) 운동오락시설

- 운동오락시설은 선비들의 놀이 등 각종 활동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일정 규모의 전통놀이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 기업 등 단체 방문객들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무리가 없도록 계획
-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축제의 복합활용을 위해 급수시설 및 공공화장실 등 부대설비를 구비하도록 계획

(5) 교육문화시설

- 교육문화시설은 유교 알아보기, 선비 되어살기, 예절 교육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핵심시설로 단지내에 이용동선을 중심으로 순환형으로 배치
- 알아보기 시설을 위한 박물관은 약 4,000㎡의 연면적에 다양한 전시시설 공간과 수장고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하며, 그 형태는 전통한옥으로 계획
- 체험관은 박물관의 체험시설을 보완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의 전통공연(문방사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700㎡의 규모로 실내체험시설과 소규모 화장실 등으로 구성
- 선비 체험탐방로는 선비 관련 각종 체험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토록 하되, 주위 기존 수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 선비 전망쉼터는 기존 산림의 정상부에 설치하여 관람을 마치거나,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지 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

(6) 녹지 및 기타

-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일부 절성토되는 사면은 녹지화하는 계획으로 4군자(매난국죽)를 테마로 하는 공원 조성
- 전체면적의 40%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이 중 원형녹지는 28% 확보

IV.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방안

1. 사업추진방안

1) 사업주체 및 추진체계 설정

- 스승테마단지의 역사문화자원적 특성과 법제도적 지원, 지역발전과 연계 및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대상사업이 지닌 공공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등을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공공의 선도적 사업참여를 통해 개발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며,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되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전략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가 사업주체가 되어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운영 등 수익적 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설정함
- 단, 이러한 공공부분의 선도 개발은 도나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는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공/민간의 기능적 분담]

	Sub & Attractions		Core Attractions
제공편의	기반시설 공급	↕ 공간이용의 활성화	한국 스승문화촌 운영
	↑		↑
	개발비전외 부각지원성		관광성/편의성
사업추진주체	공공의 선도개발		민간자본의 활용
역할	방문객의 관광등기 충족		방문객의 기본욕구 충족

2) 시설개발 체계 설정

(1) 시설별 특성 규명

- 유교스승문화단지의 도입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과 역사문화의 체험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중 기반시설은 시설의 성격에 따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인프라시설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유인시설인 유교문화 전시시설 및 박물관으로 대규모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익 또는 홍보성 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체험 및 상업시설은 수익적 시설로 일정 이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시설을 의미함

[주요 시설별 특성 규명]

구분	주요 도입시설	시설특성	시설개발방향
기반시설	인프라시설	• 한국 스승문화촌을 위한 부지조성 • 한국 스승문화촌을 위한 인프라시설	공공적차원에서 시설 개발
	전시시설 및 교육관	• 기호유교의 홍보 및 전시시설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인 시설	공공적차원에서 시설 개발
운영시설	체험 및 상업시설	• 한국 스승문화촌의 주요 수익시설 • 체험 및 상업 활동을 통한 수익시설 • 기념품 및 식음 판매 등의 수익시설	고수익형 민자유치 시설

(2) 시설개발 체계 설정

- 인프라시설과 전시시설 및 박물관 등의 기반시설의 경우 공공이 개발하여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함
- 한편, 수익시설의 경우 운영에 따른 수익 규모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 운영 체계 설정(사업주체의 관점)

- 유교스승문화단지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입장에서의 시설 운영체계를 설정함
- 공공시설의 경우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의 운영 수익 확보를 위한 시설 임대 또는 사업권 부여를 원칙으로 계획함

[주요 시설별 사업 주체 및 시설운영체계 설정]

	구분	공공	민간	직접운영	시설임대	사업권부여
기반시설	인프라시설	○		○		
	전시시설 및 박물관	○		○		
운영시설	체험 및 상업시설		○		○	○

3)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 사업착수단계

- 사업착수단계는 본격적인 시설 개발의 전 단계로서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사업부지 선정과 토지관련 업무, 단지개발 컨셉설정,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결정, 사업타당성 검토,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과 인허가 등 수속에 대한 계획 업무가 포함됨
-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등은 분야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논산시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 및 의사결정, 분야별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함
- 또한, 토지관련 업무, 인허가 관련업무 등의 대관, 대민업무는 업무의 성격 상 논산시가 가진 공공적 입지를 적극 활용하여 수행함

(2) 개발단계

- 개발단계는 조성된 시설용지 구입, 소유문제, 시설건설, 시설보유 등 비용투자가 활발한 단계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감리 및 감수가 필요하며, 목표연도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개발단계는 기본/실시설계, 공사, 운영준비로 세분화 할 수 있음

(3) 관리운영단계

- 관리운영단계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단계로서 시설운영 능력, 경영노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개방 준비기와 개장 초기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교스승문화단지의 이미지와 사업성과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단계별 주요사항]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고
사업착수단계	사업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용역관리 예비타당성 의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스터플랜 및 사업타당성 예비타당성 의뢰
개발단계	기본/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티입찰공고 및 발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리 인허가 및 영향평가 업무 토지매입 업무 마케팅 업무 	설계시공 일괄입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지정 각종 평가 및 인허가 완료 실시설계 완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관리감독 공사관련 개별 인허가 업무 	착공 및 준공
	운영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본부 발족 시설세부 운영계획 수립 단계별 인력채용 / 교육 각종 비품, 집기 구입 개장 준비계획 / 실행 시험개장 실시(조직, 시스템 등) 	
관리운영단계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장행사 홍보 및 관측 	그랜드 오픈
	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운영 	

2. 관리운영방안

1) 관리계획

(1) 기본방향

- 관리운영계획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이 개시되는 시기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임
- 개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나, 총괄적인 관리는 유교스승문화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논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유교스승문화단지의 관리는 이용객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의 특성, 규모,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기능을 구비함
- 관리운영은 기본적으로 유교스승문화단지의 환경위생관리, 시설관리, 안전관

리, 서비스관리, 위생 및 공중보건관리, 방문객 관리, 조직기구관리 등으로 구분됨

(2) 관리체계

- 본 계획대상지의 관리는 종합관리소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함
- 개별시설의 관리는 입주업체에서 수행하되, 공공 이용시설은 종합관리소에서 관리함
- 일반적으로 크게 환경위생, 시설, 안전, 서비스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함

(3) 관리기구

- 관리기구는 관리소장 아래 업무담당, 시설담당, 서비스담당의 부서를 두고 기구별로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
- 업무담당은 예산의 수립과 시행, 인력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위생관리, 시설개발과 보전책, 시설관리, 사회문화시설의 관리까지 담당
- 시설담당은 단지내의 교통시설(주차장, 도로), 제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비롯하여 단지의 정비와 상하수도 시설, 오물처리시설, 각종 조정시설과 위락시설의 관리와 안전 담당
- 서비스 담당부서는 시설사용 불편사항과 대외홍보 업무, 종사원의 제반교육 등을 담당

(4) 관리인원계획

- 사업특성상 계절적으로 이용객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뢰성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함
-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정직원 외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의 임시직을 고용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지역주민의 고용은 크게 단순고용부분과 간단한 훈련을 통해 가능한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함

2) 운영계획

(1) 기호문화권 대표관광지로서의 특성 강화

- 고속도로 축상 충청남도과 논산시의 대표 관광지 이미지 창출
- 충남 논산시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 체험 및 경험 등 관광이용 행태에 부응하는 축제의 장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함
- 또한 기호유교박물관, 선비문화거리, 유교교육공간을 축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함

(2) 금강 및 논산의 관광서비스 수준의 제고

-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
- 재방문의 욕구 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이용체제와 서비스 제공
- 종업원의 서비스교육 강화

(3) 논산·유교문화권 문화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활동

- 계획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간접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변 개발 관광지 및 시설과의 연계 및 판촉
-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기사화를 유도
- 대상지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4) 새로운 문화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 추구

- 계획지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 신규시설의 개발과 기존시설의 리뉴얼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변화를 시도함
- 매년 새로운 주제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재방문 유도

V. 타당성 및 지역파급효과

1. 건립타당성

1) 관광측면

■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명소의 육성

- 기호유교는 단순한 시대의 학문을 넘어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정신을 발휘하여 항쟁 운동에 참여한 역사적 유산으로서 관련된 유물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기호유교는 충남과 논산에서 자랑할 만한 지역의 자원임
- 여기에 스승이라는 테마를 결합시켜 차별화된 문화교육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그 속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도입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 논산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자원의 활성화 수단

- 논산지역은 풍부한 농산물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유교 스승문화단지의 조성은 충남 내륙의 거점시설로서 주변 관광자원과 지역축제 자원과의 연계로 지역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음

■ 기호유교의 홍보 수단

- 기호유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는 공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스승문화단지의 조성은 기호유교문화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유교스승문화단지는 기호유교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호유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역사문화교육공간으로 특히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직접적으로 기호유교문화를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호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논산시의 대표적 문화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음

2) 유교스승문화단지 조성의 효과측면

■ 기호유교문화의 우수성 알림

- 영남학과와 기호학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 유학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유교의 주류였던 충남의 기호학파에 대한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 유교철학정신을 되새길 수 있음

-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등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는 예절과 존중에 대한 정신적 중요성을 유교철학을 통해 되새길 수 있음

■ 논산 지역자체의 전통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음

- 기존 논산훈원소와 농업이라는 논산의 지역적 이미지를 유교스승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과거의 문화와 교육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이미지를 오늘날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마련

3) 조성 후의 파급효과

- 현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또 하나의 전통 문화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잊혀져가는 유교문화에 대해 관련 학문분야들(역사학, 민속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관심을 증대시켜 기호유교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음
- 논산시의 기존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풍부한 답사벨트를 제공할 수 있음
- 논산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진작시킬 수 있음
- 기존 충청권의 느낌으로만 간주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기호유학의 정신적인 풍부함과 역동성을 충청권 전반에 더해줄 수 있음

2. 지역파급효과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

- 농촌자원과 수변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미지 개선
- 농촌의 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지로써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함
- 21세기 문화와 여가 시대에 걸맞은 각종 편의시설·체험시설 및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관광경쟁력의 확보

■ 기호유교 문화권 거점 관광지 형성

- 대전, 충북, 충남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기호유교문화권 중 유교스승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논산시가 기호유교문화권의 거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대형 이벤트 개최 시 유교스승문화단지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논산지역이 행사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백제문화권의 배후관광지로써 점차 증가하게 될 관광객수요를 흡수하고 백제역사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유교스승문화단지의 각종 편의 시설 및 교육시설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논산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문화교육 공간이 될 수 있음
- 각종 휴식공간, 문화·여가·레크레이션 공간의 확충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여가·레크레이션 욕구 충족 및 확충에 기여함

■ 체류형 관광지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유교스승문화단지를 통해 논산이 가지는 방문형 관광지로써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 점차 증가하게 될 관광객 수요를 공략한 각종 관광관련 산업의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기반을 형성하고 지역기반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자연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이용

- 기존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유교스승문화단지를 연계하여 신규 관광단지 및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보전적 개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유교스승문화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적절히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하여 진정한 지역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2) 정책적 파급효과

■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관련 사업 추진으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개선, 산업의 다양화 등 지역경제 정책에 기여
- 특히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서해안 시대의 구호에 의한 내륙지역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교스승문화단지는 지역의 소외감을 떨칠 수 있는 시설임

■ 자연환경의 보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흐름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에 기여
- 기존 관광자원의 체계적이지 못하게 활용이 미비했던 각종 역사 문화자원의 이용이 보전적 개발을 통해 이뤄 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문화자원 보전정책에 기여

■ 국민복지의 향상

- 국민복지관광 실현을 위한 여가·관광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국민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여가문화정책에 기여

-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기회를 증진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정책에 기여

■ 참고문헌

-